

노동절에 참가하는
우리의 입장을 위하여



118주년노동절 맞이 연세 Mayday Network자료집

노동절에 참가하는
우리의 입장을 위하여



118주년노동절 맞이 연세 Mayday Network자료집

들건데, 뉴욕
26번가 브로드웨이의 교차로 한 귀퉁이에
겨울철이면 자칫마다 한 남자가 서서
모여드는 무숙자(無宿者)들을 위하여
행인들로부터 동냥을 받아 임시 야간 숙소를 마련해 준다고 한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이 세계가 달라지지 않는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착취의 시대가 짧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몇 명의 사내들이 임시 야간 숙소를 얻고
바람은 하룻밤 동안 그들을 비켜가고
그들에게 내려려던 눈은 길 위로 떨어질 것이다.

책을 읽는 친구여, 이 책을 내려놓지 마라.
몇 명의 사내들이 임시 야간 숙소를 얻고
바람은 하룻밤 동안 그들을 비켜가고
그들에게 내려려던 눈은 길 위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는 이 세계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착취의 시대가 짧아지지 않는다.

-임시야간숙소, 브레히트

권두언

글쓰는순서

메이데이의역사

교육투쟁의진행과정과계획

불안정노동철폐를위하여

지분주의시대에그리고 사회주의시대에여성권을 말한다는것

누군가에의해상징된 현실속에서

함께부르면좋은노래

고민적고나누기

주제1



메이데이의 역사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명을
 없애겠다는 말이다!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임 줄 모르고 불꽃은
 들불처럼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노동운동 지도자 스파이즈의 최후진술 중-

1. 메이데이의 유래

메이데이는 매년 5월 1일이면 전세계의 노동자들이 모여 파업과 집회 및 시위를 통해 노동자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날이다. 또한 이 날은 노동자들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노동자 단결의 날, 노동자 투쟁의 날, 노동자 국제 연대의 날이다. 그리고 그 동안 겪은 투쟁을 기념하고 단결을 확인하는 노동자 축제의 날이기도 하다.

메이데이는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시간의 쟁취와 유혈적인 경찰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한 미국의 노동자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에 세계 곳곳의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파리에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의 창립대회에서 결정되었다. 다음해인 1890년 5월 1일부터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그리고 미국의 크고 작은 공업도시에서는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의 결의를 확인하는 메이데이 행사가 상대적으로 펼쳐졌다. 그 이후 100여년이 넘는 오늘날까지 메이데이는 평화로운 기념일로 지켜 온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지켜져왔다.

1) 19세기 말 미국의 노동자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하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사회의 모든 물질적 재화를 생산한다. 노동자는 고대사회의 노예처럼 '말하는 도구'로서 물건취급을 받거나 중세사회의 농노처럼 태어날 때부터 신분적 차별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동자는 토지와 인신적 예속에서 해방되었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해방은 아니었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모든 부를 생산해 내었으나 자신이 생산한 노동의 과실을 결코 누릴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굶어 죽을 권리'만을 가진, 또 하나의 노예생활, '임금노예'의 생활이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19세기 후반은 각국의 자본주의가 독점화와 제국주의의 시대를 맞고 있던 시기로서 생산력 발전과 자본 규모의 거대화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진행되어 자본의 노동에 대한 착취가 고도화되어가고 있었다.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1890년 미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소득의 절반 이상을 전체 국민의 1/8의 사람들이 차지했고, 최상층의 1%의 소득이 전체 국민의 50%를 차지하던 최하층의 총소득보다 많았다고 한다.

850만명 정도 되던 노동자들은 매일 145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생계를 간신히 이어갈 정도의 저임금을 강요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처지의 노동자들은 서서히 자신의 잠재된 힘을 깨달으며 인간 이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무산자의 유일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조직된 힘으로써 자본과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2)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과 '하이 마켓'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은 1820,30년대 미국에서 10시간 노동제를 위한 투쟁으로 시작되어, 1937년에는 연방정부 노동자에 대해 10시간 노동제가 강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1856년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8시간 여가, 8시간 휴식'이란 슬로건으로 승리를 쟁취하면서,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운동은 확산되었다.

마침내 1884년 미국의 노동조합연맹은 4차 총회에서 1886년 5월 1일부로 미국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8시간 노동제가 정착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이 8시간 노동제를 인정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총파업을 조직하였다. 당시 미국 노동운동의 중심지였던 시카고에서는 5월 3일까지 파업이 이어졌고, 시카고 경찰은 맥코믹 리퍼 작업소에서 파업 중이던 비무장 노동자들에게 발포하여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5월4일 무정부주의 조직인 국제노동자협회 시카고 지부의 무정부주의자들이 경찰의 만행에 항의하는 집회를 헤이마켓 광장에서 조직했고, 여기에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이 집회에 대기 중이던 180명의 무장경찰이 집회대오를 향해 해산을 강요하던 중 경찰 대오 안에서 폭탄이 폭발하였고 경찰 7명이 즉사했다. 이에 흥분한 경찰이 비무장 시위대에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경찰의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 혹은 부상자의 숫자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이후 시카고 경찰의 무차별적인 체포공세로 8명의 무정부주의자들이 '폭동고사 및 살인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정부와 경찰에 의해 자행된 학살과 잔혹 행위는 극심한 노동운동 탄압공세 속에 묻히게 되었다. 앨버트 파슨스, 오거스트 스파이스, 조지 앵겔, 아돌프 피셔, 루이스 링, 마이클 슈왈, 사무엘 필덴, 오스카 니브 등 이른바 시카고 8인(Chicago Eight)은 극도로 폭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불공정한 재판에서 8명 전원이 유죄선고를 받았고, 집회에서 연설했던 앨버트 파슨스와 오거스트 스파이스, 그들의 동료 조지 앵겔과 아돌프 피셔 4인은 1987년 11월 처형당했다. 역시 사형선고를 받았던 루이스 링은 처형 직전 감옥에서 자살했고, 종신형을 받았던 마이클 슈왈, 사무엘 필덴, 오스카 니브 등은 1983년 사면으로 풀려났다.

3) 메이데이의 탄생

1889년 세계 20여개의 나라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의 창립대회에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기치 아래 8시간 노동제와 상비군을 국민군으로 대체할 것 그리고 국제 노동법의 제정을 결의하였다. 또한 이 대회에서는 프랑스 노동조합의 지도자 레몽 라빈느의 제안을 받아들여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동시에, 1일 8시간 노동의 확립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대규모 국제적 시위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결의는 미국 노동총동맹이 같은 날 벌이기로 계획하고 있던 8시간 노동일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국제적인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취해진 것이었다. 첫번째 메이데이 행사는 이러한 제2인터내셔널의 결의에 입각하여 전세계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일의 쟁취라는 공통의 요구를 위해 투쟁을 벌여 그들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이후 메이데이는 매시기마다 변혁주체들이 당면의 과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지는 국제적 기념일로 치뤄지게 되었다.

2. 한국의 메이데이

■1920~30년대의 메이데이

“비밀에서 자라므로, 자라에서 돌진으로 급진적화하는 세계 노동운동의 대세는 그 전투 방법이 일일총 교묘를 가하여 혹은 백병 혹은 돌진적 혹은 일제 시위 등 실로 천차 만별의 전술을 발명하였도다. 거꾸 5월 1일의 만국 노동자 시위일은 세계 노동운동의 전형식典式이라 가위할 것이니 각국의 일반 노동자가 일제 단결하고 사일斯日에 휴업하여 혹은 행렬 혹은 연설 등 방법으로 현 사회의 자본주의적 왕국에 육박함은 실로 일대 장관이라 아니할 수 없는 바이다.”

(동아일보 1923년 5월 4일자 사설 中)

한국에서의 노동절은 일제 치하에 있던 1920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의 노동자들은 1920년 3월 1일 민중항쟁 이후 3월 22일 노동자 대회를 열었으며, 1923년 조선노동연맹회를 중심으로 5월 1일 조직적인 노동절 투쟁을 준비하게 되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평균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으며, 특히 18세 미만의 소년 소녀 노동자들은 감옥 같은 가숙사에 갇혀 노예 노동을 강요받았다. 23년 노동절 행사는 비록 일본 경찰의 삼엄한 감시와 탄압 속에 열리지 못하였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절 행사를 조직적으로 시도하는 중요한 성과를 남겼다. 이후 24년 건설된 조선 노동총동맹은 25년 8시간 노동과 최저 임금의 확정, 소작료와 지세의 자주 보담, 동양척식회사에 의한 일반 농민의 조선 이민 반대, 언론 집회의 자유 개방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인천 대구 강경 홍원 진주 광주 군산 나주 진영 함흥 등 전국 곳곳에서 노동절 투쟁을 성사한다. 그리고 25년 4월, 조선 민중들의 민족 해방과 노동의 해방의 염원을 담은 조선 공산당이 창당된 이후 노동절 투쟁은 좀 더 정치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일제는 더욱 강하게 노동절 행사를 봉쇄한다. 하지만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26년부터 노동절은 전국노동총동맹의 지도 하에 총파업 가두 투쟁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더욱 강력하게 진행된다.

1930년대에 들어서며 상황은 바뀌게 된다. 전세계적인 공황 속에 일본 제국주의는 31년 일본의 만주 사변, 37년 중일 전쟁을 도발하며 전쟁과 새로운 식민지 개척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 이러한 가운데 일제의 탄압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행되었다. 1931년부터 1935년에 이르는 기간 노동 운동으로 1759명이 검거되었다. 탄압으로 조선노동총동맹은 무력화되었으며, 조선공산당은 28년 해체된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37년 조선병참기지화 이전까지 매년 전국 곳곳에서 '일제 타도'의 기치를 내걸고 노동절 투쟁은 동맹 파업 가두 투쟁으로 진행되었다. 함흥 홍남 광주 평양 원산 군산 진남포 북청 청진 인천 울산 왜관 거창 안동 주을 김해 등이 대표적인 투쟁 지역이었다.

■해방이후의 메이데이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의 민중들은 자유로운 조건 속에서 다시금 급속하게 투쟁의 조직, 해방의 조직을 건설한다. 1945년 9월 조선 공산당 건설, 11월 1194개 노조 50만명 노조원의 전국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가 건설된다. 46년 노동절 행사는 조선 공산당, 전평, 경성 평의회의 공동 주최로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20만 노동자가 참여하여 성대히 치루어졌다. 이외에도 인천 대구 논산 삼척 등 전국 10여 곳에서 수천에서 수만명까지 참여하는 노동절 행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46년 5월 9일 마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남한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노동총 등의 우익 반공 단체들을 동원하여 전평 조선 공산당 등에 대한 대대적인 테러, 조직 분열 공작을 진행한다. 전평은 이에 대해 46년 9월 철도노동자의 파업을 시작으로 25만 이상이 참여하는 9월 총파업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는 미 군정과 친일파 세력의 폭정에 시달리던 민중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100만 민중이 투쟁에 나서는 10월 항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미군정은 무장 경찰 반공단체들을 동원해 철도파업 현장을 기습, 파업을 파괴하고, 전평 조선공산당 등의 활동가 140여명을 검거

함으로서 46년 민중들의 항쟁을 진압하였다. 그리고 47년 5월의 제 2차 마소 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남한의 단독 선거를 준비하게 된 미군정과 반공 친일 세력들은 더욱 무자비하게 민중들의 자주적 민주적 대중조직들과 정치 조직들을 백색 테러와 정치 공작으로 파괴해나간다. 이러한 가운데 전평은 48년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27 총파업 투쟁을 벌여내기도 하였으나 48년 미 군정이 전평을 불법화함에 따라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게 되고, 47년 3월 제주 43 항쟁 48년 10월 여순 반노동절은 전평에 대한 탄압과 미군정의 지원 하에 성장하던 대한노총 단독으로 치루어지게 되었다.

■배앗긴 메이데이

1848년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된 이후, 메이데이는 대한노총이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한노총은 투쟁하는 메이데이가 아닌 기념행사로 메이데이 투쟁을 전락시켰으며, 메이데이 기념행사에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등의 물계급적 행태 또한 벌이기도 하였다.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은 메이데이의 노동자계급성을 거세하고 참된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해 메이데이 날짜를 변경하도록 대한노총에 지시했다. 이에 대한노총은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의 전신)의 결성일인 3월 10일로 메이데이 날짜를 변경하고, 이를 '노동절'이라고 불렀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5월 1일 노동자의 날을 불법화하고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대체하였다. 자본가와 정권은 노동자라는 최소한의 자각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조건에 수많은 노동자만중을 몰아넣었다. '노동자'라는 말 속에 역사적으로 녹아있던 변혁해방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주체의 의미는 근로자라는 말 속에서 근대화 프로젝트의 주체, 수출 역군의 주체, 피자배자라는 의미로 변화하게 된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새마을 운동 산업화 프로젝트 반공주의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굴종과 초과착취를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였다. 특히 박정희 정권은 '근로자의 날' 기념식에서 열심히 일한 '모범 근로자'를 뽑고, 자본

가들에게는 '금 은탈 산업훈장'을 주며 자본가와의 협조주의를 고취하기도 하였다.

■다시찾은 메이데이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며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그 잠재력을 서서히 키워왔다. 그리하여 마침내 1987년 789 대투쟁을 거치며 노동자들은 진정으로 이땅의 역사 발전의 주인임을 이 사회에 각인시켰다. 그리하여 그 거대한 투쟁의 성과를 모아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전국적 조직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배앗긴 메이데이를 되찾으려는 노력은 산발적이고 부분적이기는 했지만 80년 중반부터 선진 노동자들에 의해서 존재해왔다. 그리하여 1989년 5월 1일 제100주년 메이데이(정확히는 99주년이었다)를 앞두고, 전국회의 아래 결집한 이 땅의 민주노동자들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 불명예의 날'로 규정함으로써 굴욕에 찬 지난날의 근로자 인생을 청산하고 자랑스런 노동운동의 전통을 회복할 것을 선언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어 마침내 1994년 정부는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로 개정하였다. 물론 정부와 자본은 51일을 합법화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마하고,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을 고수하여 메이데이 정산을 계승하려는 노동자 의식을 마비시키고 정부, 자본에 대한 투쟁 열기를 식히려는 의도였지만 그것은 한낱 헛수고일 뿐이었다. 이미 노동자들의 가슴속에는 수년간의 51절 투쟁을 통해서 자울 수 없는 노동절 정신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3. 4.30 청년학생 투쟁

80년대 중 후반 이후 한국의 변혁적 학생운동은 노학연대 민중연대 그리고 학생운동의 선도적 정치투쟁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해방을 위해 싸워왔다. 특히 한국의 변혁적 학생운동에게 87년 이후 비약적으로 성

장하던 노동자 운동과의 연대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었다.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에 맞서 싸우는 청년학생들의 연대. 청년의 기세와 해방의 과학으로 무장한 선도적 투쟁은 94년 이후 430 청년학생투쟁대회를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갔다.

430 청년학생투쟁대회는 전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의 날, 5월 1일 노동절에 앞서 청년학생들이 가장 급진적인 요구와 목표를 내걸고 '독자적으로 투쟁을 진행하는 자리로 94년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3월4월의 투쟁들을 4월 말로 집약시켜내고, 노동자 민중과의 강력한 연대의 의지를 표명하는 날이 바로 430이다. 말하자면 4월 30일은 청년학생들의 노동절인 셈이다.

교육투쟁의 진행과정과 계획

2008년 등록금 인상을 8.9%

올해도 어김없이 등록금은 학생들의 동의없이 치솟았습니다. '등록금 설명회'에 불과했던 등록금확정협의위원회를 통해서 학생대표들은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통보만 받을 수 있었고 학생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학교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요구안 작성

1월31일에 있었던 임시학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2008년 교육요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등록금인상반대를 비롯하여 총장선거 직선제도입, 대학평의회 설치 및 학생참여 1/3보장 등의 12가지 요구안이 결정되었고 12가지 요구안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1년간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요구안'은 2월1일 총장님께 제출되었습니다.

신입생 OT와 새터

2월에 있었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통해서 중운위원 및 학운위원들은 새내기들에게 여러 교육 사안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논의할 자리를 가졌고 이를 통해 교육문제에 대하여 많은 학우들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명운동과 촛불문화제

3월27일, 교육요구안을 제출한지 2달이 다되어갔지만 학교에서는 교육요구안에 대하여 각 부처별로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만 할 뿐 미온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동안 중앙운영위원들은 교육요구안에 동의하는 3천여 학우들의 서명을 받았고 교육요구안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1,500명 이상의 연세 학우들이 백양로 삼거리에 모였습니다. '327 촛불문화제'를 통해서 학생들은 다시 한번 교육요구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통해 학교에 한번 더 교육요구안에 대한 이행과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촛불문화제, 그리고...

촛불문화제를 통하여 정말 많은 학우들이 등록금을 비롯한 교육문제들에 공감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아직까지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4월3일 처음으로 총장님을 비롯한 실처장님들과 학장님들이 학생대표들과의 만남을 가졌지만 그 자리에서 학생들은 긍정적인 대답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남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남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협상 테이블을 통하여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메이데이와 대동제, 6·9제

흔히들 34일이 지나가면 교육투쟁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학우들이 모였던 그 힘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나갈 것입니다. 5월의 메이데이와 대동제, 6월의 6·9제등 많은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5월에는 대학평의원회와 관련된 공청회도 열 예정입니다. 12가지 요구안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학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주제3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하여



□ 노동의 불안정성 확대의 역사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노동의 불안정화는 이미 198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자본은 임금·노동시간체계의 변동과 함께 이른바 '비정규직'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독점대기업을 정점으로 중소영세기업을 재편하는 하청의 연결고리(수직적 하청계열화)가 완성된 것도 이 시기이다. 특히 여성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고, 이들 여성노동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면서 자본의 상시적 노동력관리체제로서의 '비정규직'이 틀을 갖추게 되었다.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로 하여 자본은 총고용 자체에 대한 공격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간(基幹) 노동력화 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래로 대기업에서 더 이상의 정규직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고 자연감원된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1990년대 말 이후 경기가 회복된 산업의 경우에도 총고용의 규모는 그다지 늘지 않았고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충원되었다.

이처럼 생산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필요인원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신기술도입의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는 노동자들이 노동강도의 강화

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정리해고제로 대표되는 고용불안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집단적 방어에 실패함으로써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일상적 전환배치에 순응하게 되었고 일시적 생신헌대 국면을 최대한 활용한 '돈 벌기(전업 물량확보에 대한 집착)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신들의 고용유지의 안전판으로, 노동강도 강화의 완충제로 사고하는 경향이 심해졌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의 불안정화는 노동계급 전반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정규직의 고용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효과가 불균등할 뿐 아니라 정규직조직 노동자들의 경우 불안정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일시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얻어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노동자내부의 분절화와 양극화를 가속화시켜왔다.

한편 1980년대 후반 이래 새롭게 부상한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화가 전면적으로 진행되었다.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민간서비스산업과 학습지교사, A/S기사, 방문판매업 등 최근 특수고용형태로 문제되는 업종들이 새롭게 부상하였다. 동시에 이것은 여성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대거 유입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흔히 이러한 서비스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 부문과 달리 비정규직 고용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다. 또 이러한 비정규직 고용을 절대화하여 새로운 노동자 유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선전되기도 한다. 특히 파트타임과 특수고용형태가 많이 나타내는데 이것을 '가사와 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노동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허구적이다.

대형소매업(백화점, 할인점)에서도 처음에는 관리, 계산 등의 업무를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었지만 판매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대거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핵심업무로 생각되었던 계산 업무에까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이 활용되고 있고 정규직의 경우도 연봉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결국 이들 업종에서 비정규직이 핵심노동력이 되기까지는 계속되는 비정규직으로의 전환과 함께 노동조합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이런 업종에서 비정규직화가 별다른 저항에 부딪치지 않을 수 있었던 기저에는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가 깔려 있다. 사적서비스업의 경우 여성이 가사노동으로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해되거나 여성노동이 생계에 단지 부수적인 뿐이라는 편견이 저임금 비정규직 활용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이러한 사고는 여성우선 정리해고를 남성가장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하지만 여성에게 비정규직으로의 취업은 가사와 노동을 병행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의 결과인 것으로 설명하는 논리로 연결된다.

셋째, 이런 산업에서 노동조합의 대응력이 취약했던 것이 또한 비정규직의 전면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업종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정규직 중심으로 포괄력이 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정규직이 대부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활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다. 또한 남성·제조업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양식은 여성·비제조업 중심인 업종에서 적실성을 갖지 못했다. 바로 이런 점이 초가업적 여성 독자노동운동을 불러일으킨 원인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정규직 활용방식이 사적서비스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자본의 새로운 노동조직방식에 대해 노동운동이 대응하지 못했을 때 이것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 프랑스에서 CPE(최초고용계약) 반대 투쟁이 성공하기 까지

최초고용계약(프랑스어: Contrat première embauche, CPE)은 2006년 3월 9일 찬성 179 대 반대 127로 의회를 통과하여 2006년 4월 말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예정되었던 프랑스 노동법이다. 최초고용계약은 고용인이 26세 이하의 피고용인을 채용 후 2년간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해당 2년간 이른바 입중책임의 부과 대상을 역전시킨 것으로 고용인이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용인이 해고의 부당성을 증명하도록 한 것이다.

최초고용계약의 지지자들은 이 노동법이 프랑스내 실업난 특히 가난한 젊은이들의 실업난을 해소해줄 것이라 믿었다. 이들은 최초고용계약이 해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인들의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프랑스의 심각한 청년실업난 해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프랑스의 강력한 고용 보장정책을 해고를 쉽게 하는 것으로 완화시키면, 신규인력 채용에 대해 부담을 덜 갖게 되어 구인자들이 청년 구직자들을 고용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좌파 정치단체 및 Union for French Democracy와 같은 일부 우파 단체들 그리고 프랑스 국민의 64%가 이 법을 반대하였다. 반대자들은 이 법을 이른바 "클리넥스 계약"이라면서 비판적으로 부른다. 이는 고용인

들이 젊은이들을 화장지처럼 필요할때는 쓰다가 필요없어지면 버릴 수 있다고 인식하게 만들 것이라는 논리이다. 최초고용계약은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가 제안하였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3월 31일 저녁 최초고용계약을 인준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2년간의 해고가능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것과, 해고의 이유를 고용주가 입증해야 하는 요자를 가지는 새로운 법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 학생 수천명이 4일 파리에서 최초고용계약 법 반대 시위를 하며 행진하고 있다. 프랑스 150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으며 프랑스 내무부는 1백만명이상이 전국적으로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초고용계약법은 고용계약법의 적용대상자인 청년들과 노동계 그리고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소르본대학교를 시작으로 프랑스의 대학생들은 “정부가 청년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 “우리는 일회용 휴식클라넷스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의 소르본대학교 시위진압을 계기로 시위의 불길이 확산되어 프랑스 대학교 16곳이 봉쇄되었다. 고용계약법 반대 시위에는 노동계와 야당정치인들도 참여하여 150만명이나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프랑스 노동계에서도 2006년 3월 27일 CPE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고용계약법에 대한 반발은 상당하였다. 결국 4월 10일 고용계약법 시행에 대해 강경입장을 보이던 프랑스 정부는 최초고용계약을 폐기하고 다른 법률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2008년, 불안정노동을 철폐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2007년 7월부터 2년 내에는 기간제를 각종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정규직보호법안이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노동의 불안정성은 전보다 더욱 심해졌다. 지금 한국에는 850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고 있고 이는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는 수준이다. 지금까지의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5년 뒤에는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70%에 육박할 것이다.

노동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게 된 계기는 1997년 자본이 총고용 자체에 대한 공격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基) 노동력화하기 시작하면서이다. 노동의 불안정성 심화의 핵심고리는 비정규직 확대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투쟁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다.

2006년 프랑스의 학생과 노동자들은 2년간의 수습기간 동안 마음대로 피고용자를 해고할 수 있는 CPE법안을 폐지시킴으로써 노동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고, 법안을 폐지시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노동자와 학생, 시민간의 ‘연대’였다.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문제가 사회여론화 되고 있는 2008년,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불안정노동을 철폐하기 위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일까? 당연한 대답이지만 유일한 대답은 바로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질긴 놈이 끝내 승리한다’고 하였던가. 불안정노동을 심화시키는 핵심 고리인 비정규직의 철폐를 위해 끈질긴 목소리를 낼 때만이, 이 목소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울릴 때만이 바로 착취를 위한 노동이 아닌 인간을 위한 노동을 실현할 순간일 것이다.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http://workright.jinbo.net>),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에서 많은 부분을 참고하였습니다.

주제4

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에 여성권을 말한다는 것

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다. 임금 노동이라
는, 그리고 상품화라는 거대한 자본의 요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으
로 내몰리고 있다. '여성' 역시 이러한 자본의 억압하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자본과 가부장제의 결합으로 인해 이중 삼중의 억압에 시달리고 있다. 게
다가 최근 전지구적 사슬 고리의 형성과 함께 신자유주의라는 역사적이고
특수한 형태의 자본주의는 이러한 자본의 억압을 더욱 교묘히 그리고 뒤편
히 강화시키고 있다. 여성의 노동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가난한
것이 되었다. 여성의 가난화, 가난의 여성화가 심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또한 잘 만들어진 노동력으로서 잘 이
용하는 데 전력을 쏟는 신자유주의 시대, 더 이상 '여성'이라는 거대한 단
어만을 정치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더욱 교묘하게 공모하여 생산하는 여성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가난한 여성', '노동자 여성'이라는 이름만으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노동자 여성의 현실, 그리고 여성의 가난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유
효한 것이지만, 나아가 '성' 자체가 새롭게 구성되고, 그만큼 새로운 억압 기
제들이 등장하고 있는 지금 여성권을 말한다는 것은 더 많은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 일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의 고도로, 모든 것은 상품화되고, 남성 중심의 사회, 이성
애중심의 사회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있는 여성과 성소수
자들의 성적 자원은 빠르게 상품화될 수밖에 없다. 성매매 금지를 하건
말건 포르노그래픽 매체는 여성의 성을 팔고 있다. 이효리의 '섹시 댄
스'가 한국사회의 성소수주의를 넘어서 '잘'하게 팔리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섹시한 여성 이미지의 상품화는 표면적으로 그녀들이 자원을 획득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녀들의 노동을 가시화하거나 그러한 여성
들을 권력화하지 않는다(이효리도 인간적이어야 하고, 도덕적이어야 하
며, 때로는 청순하고, 언제나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스캔들도 없애
야 한다) 그것은 '이미지'일 뿐 권력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덧붙여 이는
자원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누구의 시선으로 매체가 구성되는가
를 각인시키고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기제가 된다. 뿐만 아니다. 성소수
자는 더 이상 '억압'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게이들의 라이프스타
일이 쾌락지향적인 것으로 추앙받고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다. 이제는
'queer'한 것 '비가시화된 것'을 바로 '최소성 있는 재미있는 것'으로 치
환시켜 상품으로 만드는 신자유주의 사회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다.

가부장제가 원하는 정상가족은 자본주의와 공모하여 남성 이상애자
노동자의 노동력과 재생산을 확보한다. 가족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가
치를 상품화하고, 그에 다시 여성을 동원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당
연한' 성별 분업은 노동 시장에서도 반복되고 있으며, 가정에서 여성에
게 부여된 것과 맞물려 더 많은 여성들이 이중 억압에 놓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다양한 가족 구성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강제하며,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획일화하거나, 획일
화할 수 없는 섹슈얼리티는 배제하고 있다. 무상에지일지 모르는 사람도,
나이가 차면 대중 결혼을 한다. 심지어 굳은 레즈비언은 결혼하지 않지
만 집안의 강압에 밀릴 수밖에 없는 레즈비언은 결혼하기도 한다. 기존
이 비혼에 비해 얻는 법적 이득은 20여가지에 달한다. 또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그것이 낳는 '결혼해야만 만들 수 있는' 가족 정책은 섹슈얼리티를 억압할 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여성권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여성의 빈곤화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여성 노동의 가난화와 함께 어떻게 지금의 여성 노동권이 구성되며, 그것을 둘러싼 일련의 가부장제적 억압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여성의 노동을 끊임없이 비가시화하고, 왜곡시키는 성 상품화와 여성을 끊임없이 타자의 위치에 놓으며, 수동적인 재생산 기능만을 요구하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 자본의 여성억압이 중첩적이고 복잡한 만큼,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투쟁 역시 다양한 지점들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누군가에 의해 상상된 현실속에서

차별철폐추진연세에정착하기주제5

장애는 장애로 '만들어 진다'

장애는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휠체어를 타고 있다고 해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늙었다고 해도, 어리다고 해도, 이동하거나 교육을 받는 등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장애'가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장애의 본질과 원인은 결국 개인의 몸이 자니고 있는 손상에 있다. 따라서 장애인 문제의 해결 역시 이러한 손상을 잘 치료하거나, 치료하다가 안되면 재활을 통해 소위 잔존 능력을 강화시켜 이어내고자 한다.

그러나 장애인 사회적인 것이며 사회적 억압의 한 형태이다. 육체적 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의 불완전한 사회조직으로 인하여 불리한 조건과 활동의 제약이며, 그것으로 인해 사회활동의 주류적 참여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1) 즉 하나의 인간학적 속성 내지는 특질인 손상이 특정한 사회적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장애라는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장애를 유지하고, 한 곳으로 몰아넣고 있는 지금의 정부 정책은 교육의 공간인 학교라고 해서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 보인다.

1) 420학생교양자료, 김도현 재인용



다양함이 다분히 존재하는 교육

효율과 수익성에 맞춰진 시장의 논리가 더해가는 지금, '교육'은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오늘날 연세대생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깊어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노력 중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 교육은 이동권, 노동권 등과 함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 생존권 문제는 인간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의 문제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사회의 장애인 교육권문제

하지만 장애인 교육의 중요성이 더해져야 할 시점에서 한국 사회의 장애인 교육의 현실은 장애학생 4명중 1명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5년에 발표한 특수교육실태조사서에 따르면 특수교육수혜율은 62.5%이지만 이와 다르게 장애인교육관련대학(이하 장교연)에서는 실제로 25.4%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162개의 지역에서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이 없고, 115개의 지역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가 없다. 결국 장애인은 최악의 학력소외계층(고졸미만)으로 전락하고 있다. 학력소외계층 또는 평생교육 우선 대상 장애인비율 67.3%, 전체 장애인의 51.6%가 초졸 이하의 학력이다.

연세대학교 내의 장애인 교육권문제

세브란스병원 재활병동에 위치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재활학교(이하 재활학교)'는 1999년 소아재활원으로 시작 1964년 국민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이후로 병원이 아닌 특수학교가 되었다. 하지만 75명의 학생들은 학교의 물리적 공간 상 교실규정이 아닌 병실규정에 따른 크기의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또 해당 교육과정의 학생 수에 따른 학급 수도 법정기준치를

훨씬 넘어선 상태이다. 남녀구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화장실 등 학부모들은 열악한 학교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연세재단은 이런저런 구실을 끌어와 재활학교 교육환경문제를 외면하다 2006년 12월 말경 설계도면을 서울시교육청으로 제출했고 현재는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또 재활학교 졸업생 중 초등과정을 졸업한 뒤 진학할 수 있는 상급학교가 없어 집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래서 중등부 신설을 약속하는 학칙 개정안 요구 결과 학칙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07년 3월 중등부 1학년 1학급이 증설되었다.

특수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교육보조인력(혹은 활동보조원)의 배치,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 장애학생이 요구하는 도구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사·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화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도록 되어있다. 센터 설립의무 자체와는 별도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2007년 4월10일에 제정되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립 의무만으로 장애학생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은 1년이 지난 현재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에는 '새움터'라는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백양관 학부대학사무실 바로 앞에 있다. 새움터는 독립적인 기구도 아닐뿐더러 담당

관할 부처가 없이 여러 부처가 문어발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내에 수많은 건물들이 이동에 방해가 끊임없이 되어왔고, 수강신청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개강일이 훨씬 지난 4월해야 교육보조인력 지원이 가능한 현실이다. 그리고 새움터는 상주직원 한 명 없이 바로 옆에 있는 학부대학사무실 직원조차 그 존재감을 모를 정도이다. 그 속에서 연세대학교 내의 장애학생들은 기본적인 교육환경조차 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인식에서 또 한 번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의 본질적 의미는 무색해져버린 듯

누군가에게는 경쟁력 상승의 수단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존과 직결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 권리의 주장은 교육의 질을 말하기도 전에 교육 환경개선문제가 더 시급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교육이 수익성 없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외면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연세대는 연세재활학교 신축공사문제의 추이를 계속해서 공개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인 새움터를 설립 목적에 맞게 재조직화해야 할 것이다. 더 볼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단순히 '타인의 고통이 아닌 우리를 이루고 있는 구조의 부조리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룰루루릴랄라~

함께 부르면 좋은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때까지 흔들리말자

새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지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지여 따르라

인터내셔널가

깨어라 노동자의 군대 굴레를 벗어던져라
정의는 분화구의 불길처럼 힘차게 타오른다.
대지의 저주받은 땅에 새세계를 펼칠때
어떠한 낡은 쇠사슬도 우리를 막지못해
들어라 최후 결전 투쟁의 외침을 민중이여
해방의 깃발 아래 서자

역사의 참된 주인 승리를 위하여
참 자유 평등 그길로 힘차게 나가자
인터내서닐 깃발 아래 전진 또 전진

민중의 노래

어둠에 찬 반도의 땅 파에 젖은 싸움터에 민중의 해방위해 너와 나 한 목숨 바쳐
노동자도 농민들도 빼앗긴 자 그 누구도 투쟁의 전선으로 나서라 깃발 힘차게
독재 정권의 저 폭력에 맞서 외세의 수탈에 맞서
역사의 다짐속에 외치나니 해방이여
보아라 힘차게 진군하는 신 새벽에 승리의 깃발 춤춘다 몰아쳐라 민중이여

연대투쟁가

연대의 깃발을 올려라 총진군이다
머리띠 움켜 쥐고 어깨 걸고 일어서라
우리는 패배를 모른다 후퇴도 모른다
강철같은 연대투쟁 전진 뿐이다
그래 너희에게 외세와 자본이 있고
폭력집단 경찰과 군대 있지만
우리엔 산님과 의리로 뭉친
죽음도 함께 하는 동지가 있다
보아라 연대의 깃발 들어라 단결의 함성
너희의 마지막 발악 투쟁으로 화답하리라

그래 너희에게 외세와 자본이 있고
폭력집단 경찰과 군대 있지만
우리엔 산님과 의리로 뭉친
죽음도 함께 하는 동지가 있다
보아라 연대의 깃발 들어라 단결의 함성
너희의 마지막 발악 투쟁으로 화답하리라

보아라 연대의 깃발 들어라 단결의 함성
너희의 마지막 발악 투쟁으로 화답하리라

파업가

흠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자키런다 동지의 약속 해골 두쪽나도 지킨다
노조 깃발 아래 뭉친 우리
구사대 폭력 물리친 우리
파업 투쟁으로 뭉친 우리
해방 깃발 아래 나선다
흠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승리의 그 날까지

비정규직철폐가

나의 손 높이 솟구쳐 차별철폐를 외친다
쓰러진 또 하나의 동자를 보듬어 안고

착취의 사슬을 끊내기 위한 저항을 바로 이 곳에서 부터,

한걸음 다시 한걸음 철폐연대에 발맞춰
굳세게 더 강하게 당차게 나선다
가자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단결투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꼭 찾아오리라

나서라 하청(과건, 용역...)노동자 탄압 착취를 뚫고서
굴욕과 상대적인 박탈감 장벽을 넘어
눈물과 설움 떨치고 반쪽 희망을 찾아서
굳세게 더 강하게 당차게 나선다
가자 노동자의 연대를 위해 해방투쟁으로
동지여 동지여 꼭 찾아오리라

동지가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에도 부딪혀오는 거센 억압에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었다 마주보았다
살을 에는 밤 고통 받는 밤 차디찬 새벽 서리 맞으며 우린 맞섰다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않을 동지여
사랑 영원한 사랑 너는 나의 동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먼저 죽는다 해도
그 뜻은 반드시 이루리라 승리하리라
해방 되는 날 통일 되는 날 희망찬 내일 위해 싸우며 우린 맞섰다
투쟁 영원한 투쟁 변치않을 동지여
투쟁 영원한 투쟁 너는 나의 동지

금금금금금

고민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나누어요

